

# 광주시 미세먼지 대책에 시민은 분통

### 시 울들어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실효성 없고 형식적 관공서 차량 2부제 유명무실·직화구이 음식점 연기 가득 화목보일러 단속 규정도 애매모호하고 실태 파악도 못해

2019년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3일 연속 광주 전역을 뒤덮으면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울 들어 처음으로 14일에 이어 15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리는 등 단속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춘다며 관공서를 중심으로 시행한 차량 2부제(짝수운영)는 유명무실했고, 광주를 둘러싸고 있는 무등산 자락 마을 곳곳에선 화목보일러와 불법소각 행위로 발생한 연기가 자욱했다. 도심 내 직화구이 고깃집 등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종일 고기 굽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주변 공기를 오염시켰다.

광주시의 안일한 대책을 보다 못한 시민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형식적 대책보다는, 광주시 주도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상에서부터 개선할 수 있는 이른바 '광주형 미세먼지 대책'이라도 마련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한국환경공단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광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주월동 104 $\mu\text{g}/\text{m}^3$ , 서석동 102 $\mu\text{g}/\text{m}^3$  등을 기록했다. 광주는 지난 12일 밤 11시 초미세먼지(PM2.5)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14일까지 시간평균농도가 위험수준인 75 $\mu\text{g}/\text{m}^3$  이상을 유지하면서 주의보가 이어졌다.

지난 12일 밤부터 광주를 덮친 초미세먼지(PM2.5)는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 후 낮 동안 중국발 스모그 등의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돼 고농도의 초미세먼지가 관측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시는 특히 울 들어 처음으로 이날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차량 2부제 시행 ▲도로 청소 강화 ▲자동차 공회전 단속 강화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차량 2부제 등은 홍보부족으로 유명무실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0시까지 30분 동안 광주시청 정문 앞에서 시민원인주차를 향하는 차량을 지켜본 결과, 전체 차량 61대 중 무려 36대(59%)가 운행자제 대상인 홀수차량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대다수의 운전자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 지조차 몰랐다. 시청 주변 어느 곳에도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청사내 차량 통제, 입간판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4일 광주시 북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를 청소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재난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리기가 힘들다"고 해명했다.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하루였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전무했다.

도심 안팎의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고기 굽는 연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 대기를 오염시키는 모습도 목격됐다.

광주시도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고 자율업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소액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또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한 원인으로 알려진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도 관리·감독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실제 이날 광주시 북구 망월동 등촌·분토마을 수산업 가구의 화목보일러에서 매캐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뿜어져 나와 마을을 뒤덮었다. 주민들은 "화목보일러 연기 때문에 창문조차 열 수 없다.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도 많고, 빨래에 검은 그늘음이 앉을 정도"라면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말만 한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에서 화목보일러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미세먼지는 15일 오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남진하면서 중부지역부터 일시적으로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안전사고 끊이지 않는 광주

### 첨단지식센터 근로자 2명 숨겨 정부 "산재 절반 줄이겠다" 역행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광주지역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14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오동동 첨단지식산업센터 승강장 공사 현장 옥상에서 철골구조물 자체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김모(50)씨 등 일용직 근로자 2명이 떨어지는 자재에 맞고 추락해 숨졌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광주역 인근 빌딩 10층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중 불꽃이 튀어 불이 났다. 이 불로 작업자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빌딩 안에는 작업자와 입주민 등 8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께에도 광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는 부품 운송업체 직원 김모(61)씨가 하역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하게 다쳤다.

또한 지난달 30일 오전 10시45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우방아이유엘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정화조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이모(52)씨가 3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숨졌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광주지역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기준 광주지역 근로자 사망자수는 16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60명에 비해 5명이 늘어났다.

지역 노동단체들은 산업 재해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우길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본부장은 "1997년 IMF이후 비정규직과 하청업체의 증가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사람 생명을 중시하며 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건설업체들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가족간 불화에... '화김 방화' 잇따라

가족간의 불화로 집에 불을 지르는 '화김' 방화(放火)가 연속 발생했다. 광주 남부경찰은 14일 형이 잘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60)씨를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남구 대촌동 자신의 둘째 형(81) 주택 때문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4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형이 과거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고, 평소 막대한 자신을 잘 챙겨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주병에 휘발유를 담아와 대문 등에 뿌려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광주북부경찰은 70대 노모와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아들 A(50)씨를 불잡았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15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단독주택에서 거실에 있던 신문에 불을 붙여 거실 장판 일부를 태운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어머니가 부모 역할을 못하고 돈을 가져다 주면 쓰기만 해 불만이 많았다"면서 "술에 취해 라이터에 불을 붙인 것은 기억이 나지만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머니 B(75)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헤어진 여친 집 침입 남동생에 흥기 휘두르고 감금

○...택배기사를 가장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여친의 남동생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7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는 20대가 경찰서 행.

○...1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27)씨는 지난11일 오후 4시45분께 헤어진 여자친구(24·광주시 서구 화정동)

의 아파트에 들어가 그의 남동생 B(18)군에게 흥기를 휘둘러 새끼손가락에 상처를 입히고, 집과 숲에서 7시간 가까이 불붙고 있었다는 것.

○...A씨는 한달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아 화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선처를 호소.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출석안하고도 학위"...의왕시장·육성재·윤두준 학위 취소

### 교육부, 동신대 감사 결과

교육부의 동신대에 대한 감사 결과 김상돈 의왕시장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졸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김시장의 학위와 학점을 모두 취소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같은 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과정에 부실 출석 의혹이 제기됐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신대학교와 부산경상대학교 감사 결과를 14일 밝혔다.

동신대에 다니는 연예인 학생들에 대한 출석 인정도 무효 처리됐다. 아이돌그룹 '하이라이프'의 윤두준·이기광·윤준형과 가수 장현승, '비투비'의 육성재·서은광 등에 대한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동신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칙과 학과 규정 등에 따라 학점과 학위를 부여했으나 일부 규정상 미비점이 있었다"며 "원칙에 따라 학점과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SNS에 구청장 업적·공약 홍보 공무원 벌금형

SNS에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모 구청에서 구청장 관용차 운전원으로 일하며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구청장의 업적이나 공약을 홍보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청장의 공약을 담은 글이나 출마

선언 동영상 등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업적을 홍보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게시한 글이 적지 않고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삼자가 작성한 것을 공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경,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